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3.1.31.(화) 14:30, 임수석 대변인(외교부)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합니다.

박 장관은 워싱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 번째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미 국가항공우주청(NASA)의 고위관계자도 만나서 우주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의회와 전문가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도 두루 만나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박 장관은 워싱턴 방문 전 2월 1일 뉴욕을 방문하여 첫 일정으로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안보리가 단결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엔

협력,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엔 주재 외교단과 유엔 사무국 고위인사 초청 리셉션을 주최하여 우리나라의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이사국 활동 추진 방향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본 언론 보도 관련, 피고기업이 직접 관여를 피하고 사과 대신 담화 계승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한일 간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아시겠지만, 강제징용 건은 한미 외교당국 간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언론 보도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이 30일 나토 사무총장 방한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한국은 2006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사무총장의 방한도 이러한 양측 간의 파트너십 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일 간 징용 해법 협의와 관련해서 다음은 장·차관급으로 고위급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속한 개최에 입장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현재 날짜를 조율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간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장관급, 차관급 또한 국장급 각급에서의 소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질문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